“지금까지 노력 바탕으로 더욱 분발해 고향의 영예 드높일 것”

김아랑, 모교 전주제일고서 선 · 후배와 공감 토크 진행

전주시는 최근 폐막한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여자 쇼트트랙 3000m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김아랑 선수를 초청했다.

시는 5일 전주제일고등학교 대강당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김명지 전주시의회 의장, 김아랑 선수와 가족, 전주제일고교 교직원과 재학생, 동문, 시·도 빙상연맹 관계자 등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아랑 선수 환영식’을 가졌다.

전주 출신인 김 선수는 이번 동계올림픽에서 여자 쇼트트랙 선수단의 든든한 맏언니로서 단체전 금메달을 이끌었다. 또 개인전 여자 1500m에서 자신은 비록 4위에 머물렀지만 1위로 금메달을 차지한 최민정 선수에게 환한 미소로 축하를 건네는 등 시종 미소를 잃지 않는 모습으로 ‘미소천사’라는 별명을 얻었다.

이날 환영식에서는 김아랑 선수와 전주제일고 재학생 등 동문 선·후배와 대화를 나누는 공감 토크도 진행됐다.

김아랑 선수는 “고향, 전주에서 환영식을 갖게돼 영광”이라며 “지금까지의 노력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더욱 분발해 전주시와 모교의 영예를 드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시는 최근 폐막한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여자 쇼트트랙 3000m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김아랑 선수를 초청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맏언니의 리더십으로 팀원들을 하나로 뭉치게 만들어 좋은 결과를 보여준 김아랑 선수에게 전주시민은 물론 전 국민이 감동을 받았다”며 “전주시의 위상과 모교의 위상을 세계에 드높인 활약에 찬사를 보낸다”고 격려했다.

/채규남 기자

완주 지역사랑 봉사단, 사랑나눔 지역사회 ‘훈훈’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생명을 활짝 피는 아름다운 꽃이 있듯이 바쁜 와중에도 자기에 일보다 남을 위해 헌신하는 봉사자들이 있어 지역 사회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

완주군 구이면은 완주군에서도 어르신을 섬기는 마음이 으뜸인 곳 이기도하다. 그곳에는 관내 어르신들을 섬기고, 내지 역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앞장서고 있는 완주 지역사랑 봉사단이 있다.

이 봉사단은 홍미경 단장, 정종윤회원, 김숙희 회원등 10여명이 똘똘뭉쳐 내지역 내마을을 위해 열심히 봉사하고 있다.

각자의 일을 하다가도 봉사의 손길이 필요하면 바로 달려가서 자기일처럼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정종윤회원은 뒤늦게 봉사단에 합류 했지만 여성들이 하기 힘든 무거운 짐들을 날으며 누구보다 솔선수범하고, 지역의 어르신들을 섬기며, 미래의 주인공인 아이들을 위해 노력하는 등 크고 작은 활동을 펼치고 있어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다. /완주=이중복 기자

전북지방우정청, 집배물류혁신 위한 Kick-off 행사 열어

전북지방우정청은 5일 오전 완주군 소재 전주우편집중국에서 김성칠 청장, 임칠래 우정노조위원장, 집배물류혁신팀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집배물류혁신을 위한 Kick-off 행사를 했다.

이 날 행사에서는 장시간 노동환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배원의 노동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인력충원, 공동작업 축소, 주5일근무제 추진 등 집배물류혁신 10대 이행과제 추진 전략과 소포·등기우편물 집배팀별 구분 등 우편집중국 물류혁신 추진방안에 대해서 참석자간 심도있는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김성칠 청장은“집배물류 혁신전략에 대한 이행상황과 현장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확인하여 10대 혁신과제를 체계적이고 전사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집배원의 삶의 질 향상과 업무 효율성 제고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군산시 경암동, 어르신에 급식 제공 자원봉사 펼쳐

군산시 경암동(동장 김영란)은 5일 대명동 소재 군산경로식당에서 300여명의 어르신들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자원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번 봉사활동에는 경암동 통장단 및 직원 등 20여명이 함께 참여해 식재료 손질, 배식보조는 물론 설거지 및 청소 등 뒷정리를 도왔다.

한편 군산시 경암동은 밑반찬 지원사업인 ‘우리 딸 찬s’와 ‘우리 아들 뚝딱’만능봉사단을 운영하며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눔과 베품을 적극 실천하고 있다. /군산=김판곤 기자

전주매일 www.jjmaeil.com 등록번호 전북 가00016 2009년 11월 23일 등록(일간) (우)560-912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4층 (서노송동)

발행 · 편집인 조봉성 부회장 김승곤

• 대표전화 288-9700 • 업무국 FAX 288-9703 • 편집국 FAX 288-9704

전주지사 010-9645-4113	중앙지사 010-9088-6874	남원지사 632-3996	고창지사 563-6999
	인후지사 246-6855	김제지사 547-8855	임실지사 010-9642-2725
삼천지사 010-2333-4791	송천지사 255-2404	완주지사 246-6855	진안지사 433-3064
	팔복지사 253-6844	남원지사 632-0995	정읍지사 536-3787
서신지사 272-9417	군산지사 010-6789-0038	순창지사 653-0444	장수지사 010-3682-6157
효자지사 010-8645-9935	익산지사 858-9923	부안지사 010-2425-4182	무주지사 010-2300-4253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인쇄인 이상현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전주시노인취업지원센터, 노인공익활동사업 발대식 · 안전교육

전주시노인취업지원센터는 5일 센터 강당에서 ‘2018년 노인공익활동사업 발대식 및 안전교육’을 했다.

발대식에는 전영배 대한노인회 전주시지회 회장과 조희정 노인대학 학장, 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어르신 153명이 참석해 새로운 출발을 다짐했다.

또 임준석 강사(전주완산소방서 방호구조과)가 노인 공익 활동 안전교육에 대한 강의도 실시했다.

센터는 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어르신들과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전주천과 삼천천변에서 하천 환경 정화 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이들은 총 14개 구간으로 나뉘어 각 구간을 청소하는 공익활동을 벌이게 된다. /채규남 기자

전주시농업기술센터, 농업인 모바일 마케팅 과정 운영

전주시는 농업인들의 정보화 활용 능력을 높여나간다.

전주시농업기술센터는 농업인들의 인터넷과 모바일, SNS 등 농업 정보화 활용 능력을 배양하는 농업인 모바일 마케팅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이 과정은 최근 모바일 쇼핑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유통 환경 변화에 맞춰 홈페이지와 블로그 등 인터넷을 이용한 농산물 홍보 및 판매에 대한 농업인의 관심과 스마트폰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을 반영해 마련된 교육 프로그램이다.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1월 26일부터 오는 23일까지 매주 금요일 총 8회에 걸쳐 진행되는 이번 교육을 통해 전자상거래에 관심있는 농업인에게 스마트폰 활용 방법과 페이스북·블로그 활용 농산물 마케팅, 스토어팜을 활용한 농산물 판매 과정 등을 교육할 계획이다. /채규남 기자

전주농협 임인규 조합장, 서울 농협중앙회 방문 이념교육

전주농협 임인규 조합장은 지난 2일 임원들과 내부조직장 등 450여명과 함께 서울 농협중앙회를 방문, 협동조합 이념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조합원간 서로의 유대관계를 돈독히 하고 전주농협에 대한 소속감을 강화함으로써 농민조합원들 스스로 자긍심을 높이는 좋은 기회가 됐다.

한편 전주농협 임인규조합장은 전국 최초로 농사연금 지급 등 농민조합원을 위한 농협다운 농협을 만들기 위해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실사구시 정책을 펴나가고 있다. /김진성 기자